‘프로농구 챔프전 우승’ SK 김선형과 아내 석해지의 내조

김선형 “우승보너스로 여행 가자” 석해지 “당신 보약 지어야지”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이 막을 내린 직후인 19일, 서울 SK 주장 김선형(30)과 아내 석해지(28) 씨를 신사동 KBL센터에서 만났다. 우승 뒤풀이를 새벽까지 했지만 우승 반지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었고, 모처럼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낸 덕분인지 표정이 유독 밝았다. 김선형은 “힘들었던 시즌이었다. 큰 부상을 입고 복귀해서 뛰는 것만으로도 값진 시간이었다. 정규리그 2위로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챔프전 2연패 후 4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까지 만들었다. 너무나 다이내믹 했다”고 한 시즌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부상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정규리그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에서 발목이 복합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김선형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울더라. 나보다 아내가 더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친 직후 발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감각이 없었다. 큰 부상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속공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 조금은 안심이 됐다”고 지난해 9월의 기억을 떠올렸다.

SK 캡틴 김선형
부상때 아내가 더 걱정됐어요
아파트 떠나갈 정도로 울더라구요
2연패 후 4연승, 다이내믹한 우승
시즌 끝났으니…집안일 도와야죠

내조의 여왕 석해지
결혼 전에는 오빠경기 보는 게 낙
그런데 다치고 나니 걱정이 앞서요
착하고 자상한 남편, 100점 만점!

●전화 위복이 된 부상의 아픔

부상을 입었지만 부부는 병원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추억이 됐다. 석 씨는 “한 3주간 병원에서 함께 살았다. 하루도 집에 가지 않았다. 병원에 오래 있으니 입을 옷이 없어 환자복을 빌려 입기도 했다. 둘이 환자복을 입고 데이트도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석 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경기를 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게 99~100%였다. 그런데 다치고 나니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 프로선수 와이프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제대로 실감했다”고 했다.

남편 김선형의 점수는 얼마일까. 석 씨는 만점을 줬다. “흠잡을 데가 없다. 착하고, 자상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집에 자주 못 오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 하지만 TV를 통해 남편의 빈 자리를 조금이나 위로받는다고 했다. 석 씨는 “남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나는 프로농구 중계방송을 통해 코트에서 활약하는 남편을 보면 조금이나마 에너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남편 김선형? 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 가면 김선형은 집안일도 돕는다. 그는 “빨래, 설거지 등 다 하려는 편인데 시즌 도중에는 아내가 말려서 못한다. 이제 비시즌이 됐으니 다시 집안일을 해야 한다. 집안일을 해보면 끝이 없는 것 같더라. 그만큼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며 미안한 듯 석 씨의 손을 잡았다.

4강 플레이오프와 챔프전을 치르면서 석 씨는 유명세를 탔다. 프로농구 중계방송 카메라에 자주 잡혔다. 김선형은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중계화면에 자주 나오니 이런저런 좋지 않은 글이 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적응이 된 듯 하다”고 말했다. SK 우승의 순간을 현장에서 본 석 씨는 “오빠가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는데 그 순간 눈물이 제일 많이 났다.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했다”고 하루 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자 김선형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소름이 돋았다. 주장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웃었다. 이어 “우승축하연에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우승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들으며 현대모비스 형들이 생각났다. 양동근, 함지훈 등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왜 플레이오프에서 잘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우승을 해봤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회장님 말씀이 많이 와 닿았다”고 하루 만에 새로운 지향점이 생겼음을 공개했다.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고 말하는 남편

SK 선수들에게는 두둑한 우승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다. 보너스 얘기를 하자 김선형과 석 씨 모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김선형은 “여행을 가고 싶다. 우승 보너스로 팀에서 단체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뿐 아니라 부인과 함께 따로 휴양지도 가보고 싶다”고 바랐다. 석 씨도 “신혼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연애할 때부터 여행을 가기 힘들었다. 비시즌에도 워낙 바쁘신 분이라 시간이 잘 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꼭 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 씨는 여행보다 남편 건강을 챙기는 게 먼저였다. 석 씨는 “보너스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보약을 지어야 한다. 홍삼 다리고, 장어도 좀 먹이고, 고생했으니까 체력 보충이 필요하다. 잘은 모르겠지만 먹는 데 제일 많이 쓸 것 같다”고 내조의 여왕 면모를 드러냈다.

유명인 아내의 삶은 그리 편하지 않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과 사진촬영 요청이 쇄도한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김선형은 남자프로농구 최고의 스타다. 하지만 석 씨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빠는 나를 배려한다며 정중히 거절하는데 나는 더 해줘야 한다고 등을 떠민다. 그래야 사람들이 ‘김선형이 팬 서비스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오빠 편이 된다고 생각한다. 팬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편이 많아지면 그만큼 좋은 거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선형은 “내가 좀 무심한 성격이다. 반대로 와이프는 세심하다. 아내를 만나고 사소한 부분을 챙겨야 한다는 걸 배웠다. 아내가 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나도 팀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주장으로 코칭스태프와 선수의 가교 역할도 한층 더 잘 할 수 있었다. 주장을 처음 맡은 2016~2017시즌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내가 결혼은 진짜 잘한 게 맞다”며 아내를 꼭 안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김선형(오른쪽)-석해지 부부. SK 김선형은 올 시즌 초반 큰 부상을 당해 오랜 시간을 재활로 보내야 했다. 아내인 석해지 씨의 존재는 김선형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즐거운 느낌도 기력도 점점 떨어져…
지금보다 한층 더 즐거운 느낌을 더 찾을수 없을까?…
금방, 너무 빨리 끝나는 실망과 자존심에…
새벽소리
액상추출차
한방원료에서 뽑아낸 40여 종의 성분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성인들께 꼭 필요한 호르몬 활성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운 생활도 또 이외(以外) 나이가 들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정신적 · 육체적 늘 겹친피로와 체력유지도 함께 하루라도 앞당겨 즐거운 생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꼭 될것으로 믿습니다. 고객님들께 실망과 후회와 거짓 없고 품위 있는 제품으로 꼭 지켜가겠습니다.
※수십년 사용해 내려온 수많은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다섯개 제품은 俞建食品家業會社 의 대표제품들입니다.
♦ 새벽소리 : 140,000원
농 협 302-0751-4955-91
2대를 이어온 家業會社
상담 및 구입문의:본사 · 공장
042)256-0239
042)256-0237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2代를 이어온 유건식품家業會社와의 소중한 만남을 맺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유건식품에 보내주셨던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유건식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유건식품은 고객님들께 실망도, 후회도, 거짓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평생 벗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제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이끌듯이 고객님과 함께 해왔던 믿음과 관심을 바탕으로 유건식품은 품위를 갖춘 브랜드라는 명예를 꼭 지켜가겠습니다.
유건식품

아주 더 오래된 속도 날이 갈수록 점점 내속을 지켜주는
수년동안 온갖것 다 먹어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아주 더 오래된 속도 날이 갈수록 점점 내속을 지켜주는
위병장
액상추출차
순식물성과 약간의 한방원료에서 뽑아낸 성분들이 오랫동안 고객님의 정신적, 육체적 마음고생까지 해오신 것을 하루라도 앞당겨 편안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꼭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해오셨습니다. 고객님들께 실망과 후회와 거짓 없고 품위 있는 제품으로 꼭 지켜가겠습니다.
※수십년 사용해 내려온 수많은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다섯개 제품은 俞建食品家業會社 의 대표제품들입니다.
♦ 위병장 : 130,000원
농 협 302-0751-4955-91
2대를 이어온 家業會社
상담 및 구입문의:본사 · 공장
042)256-0239
042)256-0237

허리도 무릎도 어깨도 늘 불편하고 너무 괴롭다면…
뭐를 하셨습니까? 하셨는데도 별 다른 방도가 없다면!
눈물이 날 정도로 견디기 힘이 든다면…
글랑
액상추출차
순식물성과 약간의 한방원료에서 뽑아낸 성분들이 지금까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 평소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이 들었는데… 오랫동안 고객님의 정신적, 육체적 마음 고생까지 해오신 것을 하루라도 앞당겨 편안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꼭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래볼까 온갖 생각다 하시면서 참고 견디어 오시기까지 고생 많이 해오셨습니다. 고객님들께 실망과 후회와 거짓 없고 품위 있는 제품으로 꼭 지켜가겠습니다.
※수십년 사용해 내려온 수많은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다섯개 제품은 俞建食品家業會社 의 대표제품들입니다.
♦ 글랑 : 150,000원
농 협 302-0751-4955-91
2대를 이어온 家業會社
상담 및 구입문의:본사 · 공장
042)256-0239
042)256-0237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중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두꺼워져오는 울룩불룩한 뭐도 함께 또 무거운 내몸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도 이제 어떤 음식이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싶은 대로 다 드세요. 이외 하나더 화장실 갈때 마다 힘주는 것도 끙끙 대는 것도 이제 너무 지겹다.
미러내
액상추출차
고객님들께 실망도, 후회도, 거짓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평생 벗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제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사용해 내려온 수많은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다섯개 제품은 俞建食品家業會社 의 대표제품들입니다.
수년동안 온갖것 다 먹어봐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 미러내 : 130,000원
농 협 302-0751-4955-91
2대를 이어온 家業會社
상담 및 구입문의:본사 · 공장
042)256-0239
042)256-0237

밤에 잠잘때나 평소에도 화장실 자주 들락낙락 하는 괴로움도…
뭐가 축 처져 내려앉은 것 같은 무지근함도…
도저히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라면… 남여 모두가
까무레
액상추출차
순식물성과 약간의 한방원료에서 뽑아낸 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찔금찔금, 뚝뚝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울 정도로 오랫동안 고객님의 정신적, 육체적 마음 고생까지 해오신 것을 하루라도 앞당겨 편안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꼭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견디어 오시는 동안 힘겹게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고객님들께 실망과 후회와 거짓 없고 품위 있는 제품으로 꼭 지켜가겠습니다.
※수십년 사용해 내려온 수많은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다섯개 제품은 俞建食品家業會社 의 대표제품들입니다.
♦ 까무레 : 150,000원
농 협 302-0751-4955-91
2대를 이어온 家業會社
상담 및 구입문의:본사 · 공장
042)256-0239
042)256-0237